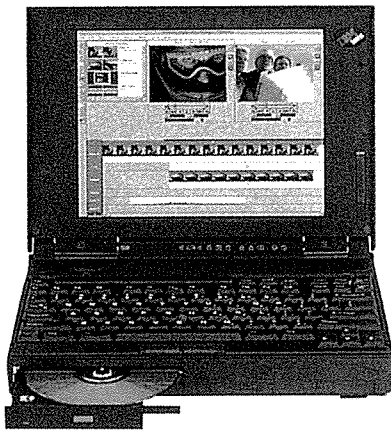


■ IBM 올인원 멀티미디어 컴퓨터

IBM사는 더블스피드 5.25인치 CD-ROM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각종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ThinkPad 755CD」를 발표했다.

이 제품은 스테레오 스피커, 비디오 등 TV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게임 포트를 장착한 '올인원' PC는 가정용 시장에 진입하여 사용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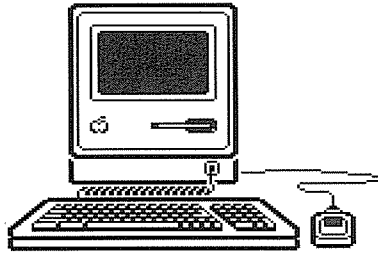
10.4인치 컬러 디스플레이를 갖춘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 가능한 Mwave DSP (Digital Signal Processor)가 있어 팩스, 자동응답기, 스피커폰으로도 사용가능하다.



「ThinkPad 755CD」는 16KB 내장형 캐쉬를 갖춘 100MHz 486DX4 프로세서에 의해 기동한다. 이는 540KB 혹은 810 MB까지 확장 가능하다.

■ 한샘시스템사, 스피디 컬러 HS - 650C

지난해 미국 바이트지 선정, 94년 잉크젯 프린터부문 최



하드웨어

고의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는 스피디 컬러 HS-650C는 480CPS로 빠른 인쇄속도를 실현하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

초당 영문 480자와 한글 210자를 인쇄할 수 있는 제품으로 레이저급에 맞는 고속 프린팅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영국 SOFT 2000사가 개발한 컬러 드라이브를 적용, 해상도 600dpi 까지 높은 것이 특징이다. 비충격 버블젯 분사방식을 채택하여 45db까지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50KB의 입력 버퍼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입출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인쇄속도를 최적화하고 있다.

영문 PCL, 레터고딕, 타임즈 노르딕, 비에프 타임즈 등의 폰트와 한글 명조/고딕 2350자, 한자명조 4888자 등의 폰트를 지원하고 있는 이 제품은 센트로닉스 페러렐 인터페이스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스피디 컬러는 연속용지 급지 방식을 채택할 수 있어 주로 도트 프린터에 의존해 왔던 기존의 금융기관을 비롯해 병원, 여행사 등 고속의 연속용지 프린팅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격은 59만9천원 (부가세별도)

■ 맥시 스위치사의 뮤지컬 키보드 '맥시사운드'



키보드 제조업체 맥시 스위치사가 개발한 'Maxi Sound' 키보드는 맥시 사운드 멀티미디어 키보드에 스피커와 마이크로폰을 결합시킨 제품이다. 이 키보드는 표준 키보드에 알텍-랜싱 스테레오 스피커, 마이크로폰 음량 조절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다른 외장형 사운드 장치나 산업표준 마이크용으로 공통 오디오 입력잭, 마이크가 달린 헤드폰용 오디오 출력잭 등을 가지고 있다. 101키. 가격은 99달러.

### ■ 제니스데이터사의 '크루즈패드'

5백피트내에서 데스크톱이나 랩톱 PC로 무선을 통해 업무를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컴퓨터라기 보다 화면이 큰 리모콘에 가까운 제니스데이터 시스템사의 크루즈패드는 약 3파운드 무게로 노트북보다 작고 가볍다.

이 제품은 무선 송,수신장치를 내장한 LCD 패널을 이용, 다른 시스템이나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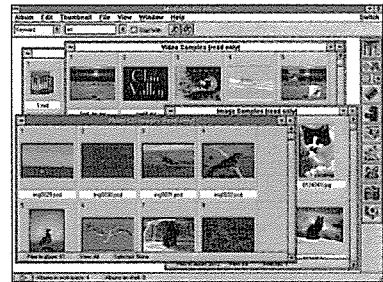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작다. 포켓제트에는 7개의 HP 폰트가 내장되어 있으며 기타 여러가지 폰트와 그래픽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가격은 4백99달러.

### ■ 미디어 스튜디오

미디어 스튜디오는 각종 미디어를 하나의 패키지에서 완벽하게 통합할 수 있는 통합 멀티미디어 툴로서 이 제품을 설치하면 비디오 편집과 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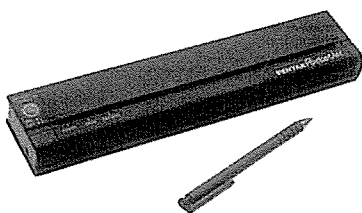
미디어 스튜디오는 미디어 종류에 관계없이 통합관리가 가능한 앨범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우편 파일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연결할 수도 있다. 화면위를 이동할 때는 터치펜이나 스타일러스를 사용한다. 화면에 뜬 키보드로 입력할 수 있으며, 일반 키보드를 추가할 수도 있다. 가격은 1천3백99달러. 플러그인보드는 5백95달러, PCMCIA카드는 6백95달러.

### ■ 펜탁스사의 '포켓제트(Pocket Jet)' 프린터

만년필 크기의 휴대용 프린터 포켓제트 (Pocket Jet)는 레이저프린터 에뮬레이션을 갖추고 있어 프린터 수준도 레이저급이라 시간에 쫓겨 인쇄해야 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10 × 1.85×2인치 크기로 무게 17.5온스로서 충전가능한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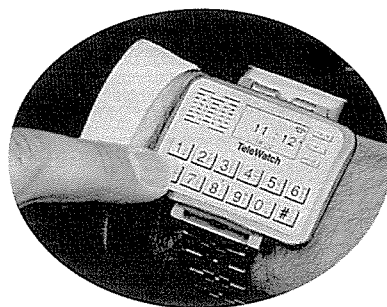
이 프린터의 인쇄 속도는 3PPM으로 1분에 A4용지 2장을 프린트하며 해상도 300dpi로서 열전사 방식이며 프린터 소음도 46dBA이하로



처, 오디오편집, 이미지와 물프편집, 스크린 캡처, 앨범의 7가지 유틸리티가 등록된다.

윈도우 화면을 자유자재로 캡처해 주는 스크린 캡처와 CD-ROM 플레이어와 믹서 레코더가 포함된 HQ90000이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양한 유틸리티로 멀티미디어 제작에 통합된 솔루션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비디오 캡처보드, 사운드 카드, HDD 20MB이상의 사용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가격은 27만5천원 (부가세별도)

### ■ 마이크로토크 테크놀로지사의 텔레와치



마이크로토크 테크놀로지사의 Tele Watch는 별도의 과다한 이동전화요금을 물지 않고도 자유자재로 어느 곳에서든 사용가능한 무선전화기이다. 손

목에 차고 다니는 이 제품은 10개의 채널로써 채널 선택이 가능하며 디지털 시큐리티 코드 (Digital Security codes)와

주파수대 변환기 (Scrambler Circuit) 홀딩버튼을 갖추고 있다.

■ 모토로라사, 만년필형 삐삐 골드라인

만년필형 뉴메릭 무선호출기 'Gold Line'은 최근의 소비자 기호를 감안, 독특한 디자인으로 설계된 제품이다.

길이 150mm, 폭 19mm, 두께 12.5mm로 최소형인 골드라인은 무게 45g으로 초경량이며 최대 8개의 전화



통신



번호를 12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다. 배터리 교체시에도 이들 메시지가 기억되며 LCD는 백-라이트 방식이다. 소비자가격은 2백29달러로서 올 1/4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 NEC, MPEG2 채용한 화상배신(配信) 시스템 상품화

NEC는 지난 2월 화상 압축 기술의 국제규격 'MPEG2'를 채용한 위성 통신용 디지털 화상 배신을 처음으로 상품화하여 수신단말과 같이 판매를 개시했다. 종래의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 위성의 중단기의 이용 효율이 대폭 높아지기 때문에 사용자는 회선 사용요금을 반 이하로 할 수 있다. 화상 배신 시스템은 ENDODER와 변조기, 제어용 PC 등으로 구성하며, 단가는 4천만엔이다. 전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기업과 통신 위성 회사, 방송국 등을 중심으로 2년간에 50시스템의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시스템 'CHANNEL PACKER'는 자사 개발 MPEG2 DECODER LSI를 최초로 채용했다. 이에따라 NEC는 동 LSI의 양산화에 착수했다. MPEG2의 데이터 압축 기술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나의 위성회선을 최대 6채널로 분할하여 고품질을 보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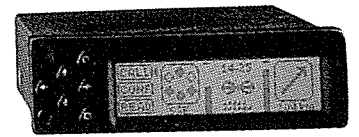
이를 위한 회선 이용료는 종래의 아날로그방식에 비해 1/2

에서 1/6정도로 삭감할 수 있다. NEC의 시스템에서는 매초 5M BIT, 7M, 9M, 11M의 4종류의 전송 모드로 용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일본생명보험으로부터 위성을 사용하여 사내교육시스템용으로 3시스템을 수주했다. 디지털 방식에 의한 저요금화로 향후 일반 기업과 방송국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솔리드 컴퓨터사의 모빌어시스턴트 I

6개의 키만으로도 원하는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으며 전세계 네트워크와 접속가능한 무선이동통신기 '모빌 어시스턴트'는 스크



린 인터랙티브 방식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는 물론, 가고자 하는 장소에 대한 각종 정보와 안내가 가능한 이동통신, 교통, 정보를 위한 다기능 기기이다.

모빌 어시스턴트는 라디오 모뎀, 위성 운행과 컴퓨터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항공사, 카렌트, 경찰, 소방대, 비상로드 서비스, 대중 교통 시스템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된다.

■ PC 화상회의

'트라이젠펜 비즈니스 스쿨'로 불리는 삼보컴퓨터의 사내 MBA 과정은 연세대 경영학 석사과정 강의를 화상회의시스템으로 실시하는 사내 인재양성과정이다. 이번 MBA 과정은 세 곳에 분산되어 있는 삼보컴퓨터의 사업장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에 화상 회의실을 만들어 회계학 정보시스템, 생산관리 등의 교과과정을 원격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이런 화상회의를 확대함은 물론, 새로운 PC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늘날과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사업상 동반자가 옆견물에 있건, 지구 반대편에 있건 업무 협력을 해야할 일이 많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 일을 같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 협력을 할 수 있느냐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수 있으며 퍼스널 컴퍼런싱 시스템

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것이다.

퍼스널 컨퍼런싱은 PC의 파워를 사용한 일대일, 개인대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즉 퍼스널 컨퍼런싱은 PC를 통해 문서를 교환하는 문서 컨퍼런싱(Document Conferencing)에서 출발하여 대화형 오디오 및 비디오 컨퍼런싱(Video Conferencing: 화상회의)을 추가하는 것으로 발전해왔다.

문서 컨퍼런싱은 사람들이 PC상의 정보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비디오를 추가하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일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얼굴과 목소리를 보고 듣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다. 퍼스널 컨퍼런싱은 LAN이나 전화선 또는 ISDN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심지어 퍼스널 컨퍼런싱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지 않은 상대방과도 퍼스널 컨퍼런싱이 가능하다.

즉 인텔의 퍼스널 컨퍼런싱 제품에는 '점프 스타트(Jump Start)'라는 것이 있어서 사용자가 퍼스널 컨퍼런싱 소프트웨어의 서브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모뎀을 통해 퍼스널 컨퍼런싱 소프트웨어가 인스톨된 누구에게서든 걸려온 전화를 받을 수 있다. 모뎀을 통해 PC로부터 누군가에게 점프 스타트하는 방법 외에도 게시판 시스템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도 있다.

애플리케이션 공유는 프로세서 퍼스널 컨퍼런싱 프리미어 에디션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이다.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하는 방법은 한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띄우고 동시에 프로세서 퍼스널 컨퍼런싱 소프트웨어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어할 수 있다.

마치 애플리케이션이 두대의 PC에서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대의 PC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된 파일들은 서로 쉽게 주고 받을 수 있으며, 같이 작업한 결과를 두 사용자가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비디오를 통한 퍼스널 컨퍼런싱은 비디오 컨퍼런싱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으로 시작되었다. PC로 경제적인 비디오 컨



FOCUS

퍼런싱을 하려면 비디오 압축 기술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비디오 정보는 텍스트 정보에 비해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 압축된 상태로 ISDN 라인이나 LAN으로 전송하고 받는 측에서 압축을 푼 뒤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ISDN은 대역폭이 충분하므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동시에 비디오와 오디오 및 문서를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송이 지체 현상없이 진행되

므로 자연스러운 실시간 교류가 가능하다.

반면 LAN은 구내에서 접속하기에는 대역폭이 충분하지만 WAN 접속을 하기에는 부족하므로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와 같은 WAN 기술이 더불어 개발돼야 한다. 더욱이 대부분의 LAN은 비동기 데이터 트래픽용으로 설계된 것이므로 다른 트래픽에 대한 역작용없이 연속적인 대역폭을 할당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을 중단시키지 않고 LAN트래픽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비디오 데이터량을 실시간에 조정할 수 있는 비디오 압축 기술이 요구된다. 프로세서 컨퍼런싱 제품은 이러한 비동기 데이터 트래픽에 적합한 제품이다. 또한 앞으로의 LAN 제품은 ISDN 제품과 상호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용 비디오 컨퍼런싱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비디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기술이 발전해야 한다. 비디오 디코딩, 대량 데이터의 실시간 이동, 다수의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운용하는 것 등이 모두 CPU 성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속도가 빠를수록 큰 윈도우와 빠른 프레임 속도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재생된 비디오의 품질이 좋아진다.

오디오 비디오 기술과 같은 압축 해제 기술의 발전도 필수적이다. 이는 데이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모뎀과 네트워킹 제품의 향상도 요구된다.

아직까지는 퍼스널 컨퍼런싱 시스템이 주로 기업체의 회의용으로 보급되고 있지만 멀티미디어 PC가 대량 보급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일반 가정에게까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7